기업리포트

▲**삼성전자**(대표·윤종용·수원시 팔달구 매탄 3동 416)는 자체 개발한 홈네트워크 전력선 통신규격 '홈비타 프로토콜'(S-Cube) 기술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홈비타 프로토콜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ube. homevita.com)를 통해 지원을 신청한 협력업체 가운데 심사를 거쳐 홈비타와 호환 가능한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비타 프로토콜은 우선 가전 및 보안, 냉난방, 공조 등 유틸리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되며, 일정 요건의 검증절차를 통과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지원 아래 홈비타 솔루션을 공유하게 된다.

현재 귀뚜라미 보일러, 린나이코리아, 이건창호 등 20여개 협력업체들이 홈비타프로토콜을 쓰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전했다.

▲**우리산업**(대표·김명준·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516의 1)은 미국 시장 판매 관리를 위해 현지 법인인 'WR AMERICA, INC.'를 설립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디지털큐브**(대표·손국일·화성시 팔탄면 노하리 427의 2)는 주가 안정을 위해 대표이사가 주식을 취득해 소유비율이 9.76%(3백3만6천254주)에서 11.44%(3백55만8천470주)로 높아졌다고 15일 밝혔다.

▲**코인츠**(대표·서석록·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9의 5)는 당초 올 상반기에 법인 등록을 하고 계획된 일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환경변화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등록법인 등록을 취소한다고 최근 밝혔다.

유무선 결제 서비스를 하는 이 회사는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 재등록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편집/유승희기자 ysh@

가구 완제품은 면제… 1차 가공 수입땐 8%

"무늬목 관세 합리적 개선을"

인천기업 대책위 산림청에 요청

"가격경쟁 약화…가공업체 위기"

"값싼 중국산과 비합리적인 관세율 적용으로 인천지역 목재산업은 갈수록 어렵기만 합니다."

인천기업들을 중심으로 무늬목의 관세인하를 주장하는 '무늬목수입관세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12일 산림청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무늬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무늬목의 경우 목창호, 악기, 마루판 및 아트월 등 인테리어 제품 등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로 국내에서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다. 무늬목에 대한 관세는 5%, 재구성무늬목에 대해서는 무려 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늬목을 사용한 의자나 소파 등 수입 가구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0%, 침대나 문갑 등은 3%로 관련 인천기업들은 심각한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원목 관세가 0%임에도 불구, 가공 없이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무늬목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늬목을 원자재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국의 주요 수입국이며 최대 경쟁국가인 중국의 완제품이 0%인 반면 원자재인 무늬목에 대한 관세가 5%, 8%인 것은 국내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은 항만, 인력, 수도권이라는 배후 시장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 목재업에 유리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기업들의 각종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관세율이 지역 토착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상태다.

수입관세액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돼 국내에서 판매하다보니 중국산에 비해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대책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인천시 남동구 ㈜인목 석정기 대표는 17일 "관세인하 추세에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0%인데도 유독 무늬목만 높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것은 유사품목 간의 불균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내수시장 침체 등 관련업종들이 폐업의 위협에 처해 있는 만큼 인천은 물론 한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에는 ㈜인목, 영창악기, 삼익악기, ㈜보르네오, ㈜리바트, ㈜한샘, 퍼시스㈜ 등의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은경기자 bulgo@incheontimes.com

맛있는 인삼피자 주한외국인과 어린이들이 17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인삼피자 페스티벌'에서 갓 구운 인삼피자를 꺼내 보이고 있다. /연합

인천항 물동량 두달째 증가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이 2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며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달 634만5천t을 처리 지난 7월 503만7천t에서 8월 586만8천t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입은 505만3천t, 수출 129만2천t으로 전달 458만4천t, 128만4천t보다 10.2%, 0.6% 각각 증가했다.

특히 컨테이너화물은 지난 한달 8만144TEU(1TEU는 20피트짜리 1개 기준)를 처리 올해 처음으로 월간 처리물동량이 8만TEU를 넘어섰다. /백범진기자 bjpaik@

道건설 국민임대 올 한채도 없어

6년간 2천364가구가 고작

올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물량은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보다 재정이 열악한 인천·서울·강원·전북이 모두 1만890가구 건설계획으로 한창 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15일 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8년 무주택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마련, 오는 2012년 목표로 추진중이다.

98년 2천501가구 건설을 시작으로 99년 2만226가구, 지난해에는 7만1천791가구를 짓는 등 지난해까지 건설실적은 모두 19만573가구이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건설될 국민임대주택가구는 모두 10만가구이며 10월 현재 1만1천960가구는 이미 건설을 완료했다. 나머지 8만8천40가구는 건립중에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임대주택 물량 가운데 도가 자체적으로 짓는 국민임대주택은 한 가구도 없는 상태다.

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250가구), 강원도(140가구), 전북도(500가구), 서울시(1만2천452가구)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과는 반대다.

지금까지 도가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은 지난해 지은 2천364가구가 전부다. 이는 지자체 건설(98~올 10월 현재) 실적 1만992가구의 21.5% 수준이다.

한편 건교부가 집계한 지역별 공공지원이 필요한 주택수요(2003~2012년)를 보면 도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44만가구(전국 334만4천가구)다.

/구대서기자 kds@

주간경제 캘린더

◇18일(월)

▲제1기 물류아카데미 교육
10월18, 11월1, 15, 22일, 12월13, 20일 모두 6차례 교육. 교육장은 오프라인 인천대학교 강의장 및 물류시설, 온라인 - Logisticschool.com 물류전문 교육사이트. 인천시와 인천대 주관으로 인천지역 내 물류기업 및 제조업체 물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물류 기본 및 실무교육 프로그램.

▲GM대우 테크-투어
19일 양일간 오전 10시 부평공장서 하이브리드 차량 등 공개.

◇19일(화)

▲경인지역상의 총무부·과장협의회
오후 4시 평택상공회의소, 10월 정례회.

▲인화회 10월 월례회 오후 6시30분 파라다이스 인천호텔.

◇20일(수)

▲부평구 경영자협의회 체련회= 오전 7시 인천 국제 CC.

▲인천시디자인산업발전협의회= 오후 4시 인천시청 소회의실.

▲상거래 분쟁 해소방안 설명회
오후 3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 중소기업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소방안, 최근 클레임 동향 및 주요사례(중재, 알선), 매매계약서 등 각종계약서 작성방법 등이 소개된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주공13단지(공공임대 5년) 특별·1순위 접수.

◇21일(목)

▲인천상의 회장단 및 분과위원회 임원 간담회
오전 11시30분 위동해운 골든브리지호

◇22일(금)

▲전국상공회의소 회장회의= 오후 3시 대전상공회의소.

▲외국인 투자기업 설명회=오전 10시30분 송도비치호텔.

▲인천 5차 동시분양 모집공고.

알 림

'생산성 향상' 추계 학술대회

22일 오후 1시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한국생산성학회(회장·남명수)와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인천일보사는 오는 22일 오전 1시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2004년 추계 학술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제2의 도약을 위한 전사적 생산성 향상'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정책세미나에는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윤은기 부총장이 '디지털환경에서의 생산성 향상 방안', 생산성본부 신형균 본부장이 '생산성과 노사관계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승영 동국대 교수와 이건희 이화여대 교수, 김경률 코트라 인천무역관장, 정재우 한국IBM 이사, 이인수 인천일보 경제부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섭니다.

이어 학술대회에서는 국제합작투자의 파트너십과 생산성 등 12편의 논문이 발표돼 치열한 경쟁시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일시**:2004년 10월22일(금) 오후 1~6시(정책세미나 진행 후 학술대회 논문 발표 및 토론)

▲**장소**: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주제**:제2의 도약을 위한 전사적 생산성 향상

▲**문의**:한국생산성학회 사무국(☎032-860-7739)

한국생산성학회·정석물류硏·인천일보사

칼라지붕공사 창고 · 교회 및 주택시공

비가 오면 걱정이 되십니까?

칼라강판으로 지붕을 새롭게 단장하십시요.

비쌌다는 이유때문에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철거에서 공사완료까지 하루에 끝납니다.

◉ 포항제철에서 생산된 신소재 아연도 칼라강판임
◉ 녹슬지 않고 칠하지 않는 8중막 양면으로 코팅 처리됨.
◉ 가격이 저렴하며 산뜻한 지붕으로 단장됨
◉ 지붕수명이 반영구적임 철저한 사후관리 (A/S) 함.

금속기와

방수 안되는 지붕 시공

칼라·강판

한징으로 된 금속 기와

칼라지붕공사 주소 : 평택시 서정동 시무실:031)666-3701 H.P 011-286-3701 018-332-8422

한성 Green 온돌판넬

어디든지OK! 설치만 하면 온돌방!

○설치장소
식당, 사무실, 교회
유치원, 콘테이너, 기숙사

■심야전기온수기
■저장식, 순간식 전기온수기
■가스온수기

순간온수기
(수도꼭지에 바로 연결)
★신제품 히트상품

한성설비 ☎032)885-1110
공장직영판매/시공

비새는 지붕·옥상····
우레탄 폼 방수로
평생걱정 끝!!!

▶우레탄폼 방수란?
기와, 스레트, 함석, 슬라브 등 어떤형태의 지붕도 손질없고 간단히 청소후 그 위에 3mm이상 우레탄폼을 디자인 장비로 뿌려지며, 시공이 간단하고 단열된 시공으로 하중도 새로 지붕에의 완전 방수제입니다. 또한 단열 효과가 있어 가정집은 물론 공장이나 냉동창고에도,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에너지 절약효과 60%이상)

▶이럴 곳에 100% 효과가 있습니다!
■ 공장지붕 방수 및 외벽단열
■ 냉동·저온창고, 농협창고, 돈사, 계사
■ 비가 새는 집 - 100%방수, 보온·단열
■ 더위가 심한집 - 여름에 그늘처럼 시원함
■ 외풍이 심한집 - 겨울에 집안을 따뜻하게 함
■ 습기가 차서 곰팡이 생기는 집
■ 슬라브(옥상바닥)균열이 심한집

미국 그레이코사 최신 발포장비 보유!

신뢰의 방수업체 심야방수공사 TEL.032)523-6111(代) H·P 017-263-6111 011-9698-6111